

한일관계의 불교적 해법 모색*

- 계율 수용의 변천사를 중심으로 -

오호연(유정)**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한일관계의 분야별 불교전파
- III. 일본불교 계율사상의 변천
- IV. 현대 일본불교의 계율관과 그 해법
- V. 나오는 말

* 본 연구는 2021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교육국장.

© 『大覺思想』 제35집 (2021년 6월), pp.73-98.

한글요약

현대 세계 경제는 총성없는 전쟁으로 더욱 강력한 전쟁을 하고 있다. 한일간의 오랜 관계도 경제와 종교·문화의 얽힘 속에서 주도권 싸움을 치열하게 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불교를 전한 나라이며, 처음 계율과 대장경을 전했다. 고려대장경과 금속활자를 얻어간 일본은 수행보다는 불교도서 관련 출판 강국이 되었고,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대처·육식의 허용으로 인한 뼈아픈 상처를 받았다.

일본의 선신니는 백제에 와서 식차마나 기간을 보내고 구족계를 받고 일본 최초의 비구니가 되었으며, 일본으로 돌아가서 일본 최초의 비구를 탄생시키기도 했다. 이후 통일신라 시대의 원효와 태현의 『범망경』 관련 저술들은 일본으로 건너가 여러 주석서를 나오게 한 중요한 불교 사상적 바탕을 제공했다.

고려시대 고려대장경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까지의 수백 년 동안 고려대장경을 구해간 일본은 중국에서 구해온 불서들과 함께 6천여 권의 방대한 ‘일체경(一切經)’을 편찬했고, 이는 현대사회에서 독보적인 『신수대장경』을 편찬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계율과 경장에서 한국의 도움을 받은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한국과 일본 승가에 대처·육식·축발을 허용하여 청정승가를 무너뜨리고 배불론(排佛論)을 일으켰다. 그리고 현대 한국승가에서는 청정승가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청정승가가 거의 무너진 상황이다.

한일간 불교 교류의 역사적 관계에서, 검색된 한일관계의 개선 방향을 불교적으로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한국과 일본불교계가 서로 계율에 대한 다양한 대화의 장을 열 필요성과 불교적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주제어

고려대장경, 일본 최초의 비구니 선신니, 일본 일체경의 탄생, 일체의 대처·육식·축발 허용의 문제, 한·일간 계율교류, 보살계와 자서수계, 임진왜란의 영향, 일본계율 수용의 변천.

I. 들어가는 말

현대는 세계적으로 총성 없는 경제 전쟁이 한창이다. 특히 지난 몇 년간 한일 관계가 경색된 것도 같은 선상으로 볼 수 있다. 2019년 아시아의 주도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아베 정부는 남북한이 공존하여 세력이 커지는 상황을 막고자 혐한(嫌韓)세력을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나 징용피해자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와 적절한 배상을 하는 대신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하며 무역보복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제2의 임진왜란으로 규정¹⁾하기도 한다. 2021년 미국 대통령이 바뀐 후의 미일 정삼회담에 따라서도 우리의 상황은 긴장 속에서 한일간의 관계를 지켜줘야 한다. 역사에서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동시에 끊임없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왔다. 최근에도 한국전쟁 때처럼 한국을 희생물로 삼아서 부활을 꿈꾸기도 한다.²⁾ 최근 한일간의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경제인들은 자신의 나라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한일 갈등이 점점 심각한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아베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2년 만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라고 표현했다.³⁾ 정치·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종교적인 면 등 다양하게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일관계의 문제를 불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의도에서, 이 글은 특히 승가의 계율과 관련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역사에서 우리는 일찍이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고 대장경을 보급했다. 나라를 구하는데 앞장선 서산·사명대사가 이끈 의병과 승병들의 활약이 컸던 임진왜란 당시 일본은 조선의 활자를 얻음으로써 마침내는 현재 불교서적을 비롯한 출판 강국이 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대처·식육 정책으로 우리 승가가 큰 피해를 보기도 했다.

1) <https://news.joins.com/article/21839161> (검색일 : 2021.4.6); 『중앙일보』, 「'제2의 임진왜란' 갑오왜란을 '갑오경장'으로 왜곡'이라는 제목으로 2017.8.13 보도

2)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16> (검색일 : 2021.4.6); GO발뉴스, 최배근, 「“일본, 한국전쟁때처럼 한국 희생물로 부활 꿈꾸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2019.7.3 보도

3) <미디어투데이>, (2019.10.4 일자); 이러한 발표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일간 경색된 관계의 해결 방안을 불교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는 그 해답을 찾기가 무척 어렵다. 한국에서는 불교 정화과정을 거쳤으나, 여전히 대처승단이 있고, 재가불교도로 구성된 종단도 있으며, 출가제도와 결혼을 하는 이들이 함께 하는 독자적인 교단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사부대중에서 독신으로 구성된 청정승가는 출가자의 공동체로서 그 역할과 기능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청정승가의 계율과 관련한 역사적 상호관계를 살핌으로써, 한일 상호간에 청정승가에 관한 보다 유연한 의식의 교류를 불교적 관계 해법 중의 하나로 보고, 이로써 우리 불교의 미래에 관한 해법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II. 한일 관계의 분야별 불교 전파

1. 계율의 전파

일본에 계율이 전파된 그 시작은 백제와의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백제는 불교문화가 대단히 번성하였다.⁴⁾ 백제 성왕(30년, 552)이 일본 흠명천황 13년에 서부 히씨(西部 姬氏), 달솔(達率)[노리사치계(怒利斯致契)] 등을 일본에 보내 금동석가상 한 점과 미륵석불 및 번개와 경론 여러 권을 일본에 불법을 전했다는⁵⁾ 기록을 『일본서기(日本書記)』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서기』와 『원흥사연기, 元興寺緣起』 등에 의하면, 일본인에게 처음 수계(授戒)한 이는 고구려 노(老)비구 혜편(惠便)과 노(老)비구니 법명(法明)이다. 일본에 파견된 이들은 일본의 동녀(童女) 세 명을 출가시켜 불법(佛法)을 가르친 후, 선신(善信)과 선장(禪藏), 혜선(惠善)이라는 법명을 각각 주었다. 그때 일본에 비구니대중(比丘尼大衆)이 없었으므로, 백제 성왕의 파견단이 도착하자 이 셋은 수계방식에 대해서 듣고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비구니 구족계[比丘尼大戒]를 받고자 588년에 백제로 건너왔다. 이

4) 이능화, 『역주 조선불교통사』 4, 동국대출판부, 2010, pp.219-222.; 성왕 4년(526)에 겸익(謙益)이 인도에 갔다가 인도승려 배달다삼장과 함께 범본 아비담장(梵本阿毘曇藏)과 오부율문(五部律文)을 들여와서 율부(律部) 72권을 번역하고, 백제 율종(律宗)을 열었다.

5) 이능화, 위의 책, pp.227-231.

들은 곧 식차마나계에 해당하는 육법계(六法戒)를 받고 2년을 머문 후, 그 이듬해에 목적했던 구족계를 받고 귀국하였다.⁶⁾ 이 기록은 당시 백제에서 이부승수계의식(二部僧授戒儀式)이 여법(如法)하게 행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들은 일본 최초의 출가자로서, 포살을 시작했고 비구도 탄생하게 하는 등 고대 일본불교에서 여성이 큰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⁷⁾ 이후 당(唐)의 감진(鑑眞, 688~763)이 일본에 와서 『사분율, 四分律』을 전하기 전까지, 백제가 일본에 계율을 전한 사실은 명백하다. 백제의 불교 전파에 힘입은 일본은 곧 당과 송나라에 들어가서 여러 종(宗)을 받아들여 불법을 펴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도 한국의 계율 관련 저술서들이 일본의 계율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것을 그들의 기록⁸⁾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에서 찬술된 불교연구서들에 관한 일본 및 중국의 주석서 중에서 통일신라 원효(元曉; 617~686)의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와 태현(太賢; 大賢, 신라 경덕왕대)이 저술한 『범망경보살계본종요(梵網經菩薩戒本宗要)』,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述記)』 등에 관한 일본 주석서들이 다수 발견된다. 특히, 태현의 계율 관련 저술에 관한 일본 주석서는 50여 종⁹⁾에 이른다. 태현의 다른 저술서인 『범망경종요(梵網經宗要)』의 경우, 숙종 1년(1695)에 간행된 것을 일본 다이쇼대학(大正大學)이 소장하고¹⁰⁾ 있는 중이다. 일본에 보살계를 전한 감진과 그의 제자 법진(法進)이 쓴 범망경에 관한 주석서가 있지만, 태현이 저술한 범망경 주석서가 중요시되었다. 태현 이전에 중국의 지의와 법장 등이 쓴 범망경 관

6) 김영태, 『삼국시대불교신앙연구』, 불광출판사, 1990, pp.381-385; 1980년에 혜편(惠便)과 범명(法明)은 환속한 이들로서 선신(善信)·선장(禪藏)·혜선(惠善)이 백제에 건너온 이유는 그들이 받은 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일부 일본학계의 주장에 대해서, 김영태는 당시 일본의 불교에 대한 인식과 역사 기록 등에서 볼 때, 그 두 스님은 형편상 대외적으로 속복을 걸쳤을 뿐, 세 명의 출가자를 맞이한 석천정사(石川精舍)에서는 이미 다시 출가자의 복장으로 돌아와서 여법하게 사미니계를 수계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7) 벽곡, 『동아시아 비구니교단의 역사』, 조계종출판사, 2012, pp.202-203.

8) 김천학,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일고찰」, 『서지학연구』 70호, 한국서지학회, 2017, pp.203-225.

9) 김천학, 위의 논문.

10)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7406&cid=46648&categoryId=46648>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검색일자: 2021.4.9)

런 주석서가 존재했음에도, 태현의 보살계 사상을 『범망경』과 『화엄경』이 같다고 본 요시즈와 같은 이들의 영향으로 신라의 계율사상이 일본에서 중시되어왔다.¹¹⁾

이렇게 한반도에 불교가 유입되었던 초창기에 우리가 계율 관련하여 기울인 노력은 고구려와 백제, 신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본과 계율 관련 교류가 있었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 이유는 아마도 조선에서 산중불교화하는 과정과 함께 일본에서도 성문계보다는 자서계(自誓戒)¹²⁾가 성행하던 시기와 맞물리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일본에서는 한국에서 계율 관련 교류보다는 경장을 구해가는 데에 더 치중했던 것을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2. 경장의 전파

근대에 일본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한 새로운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과 『축쇄대장경(縮刷大藏經)』 등을 잇달아 출판하면서, 세계불교계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고려대장경이 일본으로 건너간 과정을 보면, 고려 정부는 강화도로 수도를 옮긴 위급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정신을 통일하여 필승의 신념을 다지게 하고자 몽고군의 침투로 인해 불타버린 대장경 복원작업을 시작했다.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16년의 세월을 들여서 고려대장경을 완성했다. 당시 여러 나라에서 이를 원본으로 하여 경전들을 간행했다. 특히 일본은 고려대장경이 완성된 1251년 이후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난 조선 선조 25년(1592)까지 340년간 고려대장경을 구하러 왔다. 그 기록을 고려사(高麗史)와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서 찾아보면, 고려시대인 1389년부터 시작하여 조선 중종 32년(1537)까지 58여 건에 이른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에는 세종 1년부터 10년까지 해마다 장경의 일부를 구해서 갔고 세종대에만 무려 18차례나 장경을 구해갔다. 이외에도 『대반야경(大般若經)』 등도 함께 구하러 왔던¹³⁾ 기록이 있다.

11) 김천학, 앞의 논문.

12) 스스로 지키겠다고 맹세하는 것으로 수계한 것이 됨. ‘자서수계’의 줄임말

13) 박희영, 「고려대장경과 일본」, 『도협』 월보 v.1 no2, 한국학도서관, 1960, pp.4-9.

이렇게 일본이 14세기부터 15세기 중반까지 중국과 고려에서 출판된 대장경을 수집하여, 교토 남선사(南禪寺)에서 일체경(一切經)¹⁴⁾의 형태로 보존한 양은 6천여 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이다. 이 중에는 일본 선창사(禪昌寺) 케이안(慶安)이 가야산 해인사와 대구 팔공산 부인사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초조대장경을 확보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선창사에 모아진 불경에 모자란 부분을 사경하여 ‘일체경(一切經)을 완성했다. 선창사에 모셔졌던 일체경은 1614년 남선사로 옮겨졌는데, 그 이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 권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타종단에 경장을 빼길 우려가 있어서 승려들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허락으로 옮겨졌다. 대장경이 교토로 옮겨진 이후 임진왜란에서 구해온 조선의 금속활자를 활용하여 활발한 불서 간행과 학문보급이 시작됐고,¹⁵⁾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근대에는 출판 강국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임진왜란을 할 자전쟁, 즉 경전을 위한 전쟁으로 보기도 한다. 이는 일본이 대장경을 결집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이 삼장을 모두 포함한 대장경을 발간한 것은 에도 막부시대(17세기)부터였는데, 중국의 대장경을 모방한 한역대장경(漢譯大藏經)이었다. 그런데 중국에서 들여온 대장경은 고려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이 소장하고 있는 원나라 시대에 제작된 중국대장경[元版大藏經]을 중국에서 들여왔다고 보고 있지만, 14세기 이전에 제작된 일본의 일체경을 위해 수집된 유물 대부분은 한 반도를 거쳐 전해 내려왔을 가능성이 크다. 원판대장경에는 고려 충선왕(1275-1308)이 주관하여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심왕부(心王府)의 직인이 찍힌 불경이 상당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 충선왕이 불경제작에 참여한 부분이 공개되지 않았던 사안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며, 향후 한·중·일 인쇄문화에서 새로 밝힐 연구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대장경이 일본에 전래된 경위를 놓고 학계 논란도 크게 예상된다고¹⁶⁾ 보는 이유는 충선왕이 연경에 만권당(萬卷堂)을 세우고 많은 책을 펴냈고 그 중의 상당수를 고려로 들여왔으며, 이는 다시 일본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14) 중국불교 특유의 분류법에 새롭게 집성한 불전 전체를 ‘대장경’ 혹은 ‘일체경’, ‘장경’이라고 한다.

15) 한인섭, <프린팅 코리아>, vol. 79, 2009.

16) 한인섭, 위의 논문.

고려대장경이 일본에 전해진 이후 이들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현존하고 있는데, 일본은 고려 말 14세기 말부터 17세기 조선 효종대(代)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우리에게 대장경을 집요하게 요구했다.¹⁷⁾ 그 이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신활자판에 의한 여러 대장경이 간행됐고,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신수대장경』은 10년(1924~1934) 동안 편찬, 간행되었다. 이는 일본 근대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에 힘입어 근대식 활자로 간행된 대장경이다.

한편, 고려대장경이 전래된 무로마치시대는 고려대장경을 집안 사찰에 안치하고 장군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호국 기도 등에 쓰였는데, 당시 선종이 불교의 실천수행을 중시하는 대신 교학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고려대장경의 학술적인 영향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이처럼 근대이전까지 일본불교계에 계율도 경장도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3. 대처(帶妻)·식육(食肉)의 허용

근대에 들어 일본 승려들에 대한 대처·식육 허용 문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계율과 대장경을 일본에 전파한 것과 달리, 일본에서 우리에게 역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부분이다. 문명 강국을 추구하던 메이지시대의 일본은 한국불교를 더는 배워야 할 대상이 아닌 포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정치적 지배 논리와 맞물린 식민사관을 도입했다. 그런 이론을 추구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다카하시(高橋享, 1877~1966)는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불교가 무기력하고 의타적이라고 보면서 율원을 일으키고 재가불자들에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는 지식인들에게 불교학 지식을 가르칠 것을 주장하는 한편, 한국의 승려들이 일본으로 유학 가는 것은 한국불교가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는 일본불교가 단지 학문적 지식만을 추구할 뿐 출가자로서 갖춰야 할 수행과 청정성이 빠졌기 때문¹⁸⁾이라고 이중적인 잣대를 대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연구는 그 이후 한국불교를 연구하는 일본 불교학계에서 현대까지도 중요한 학문적 토대가 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7) 박희영, 앞의 논문.

18) 김천학, 「일본불교의 한국불교 인식」, 『불교평론』 37호, 2008.

일본 유학을 다녀온 승려들이 늘어나면서 불교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에서 일본 유학생 출신의 대처승이 본사의 주지가 될 수 있게 사법을 개정하는 결의를 총독부에 제출하였을 즈음에는 거의 모든 승려가 결혼하고 파계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찰의 재산을 탕진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총독부 당국에서는 그 대안을 세운다는 발표가 이어졌다.¹⁹⁾

백용성(白龍城)은 1926년 5월과 9월 석왕사 주지 이대전(李大典)과 해인사 주지 오회진(吳會眞) 등 127명의 서명을 받아, 승려들에게 대처·식육 허용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건백서(建白書)를 2차에 걸쳐 제출하면서 조선총독부의 불교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불교계의 정화운동과 한국불교 전통을 사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오히려 1926년 11월 승려들의 대처·식육을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논리로 이를 허용하였다.

실제로 1926년 당시 조선 승려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미 대처승이 되었고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일본의 각 종파에서 대처를 공식화한 것은 1937년경으로, 조선의 비구가 대처하는 상황이 일본보다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조선에서의 대처승 허용의 문제는 종주국인 일본불교의 지배논리에 따른 식민지의 강압에 의한 것이지만, 이는 다시 일본불교의 대처승 문화가 확산하는 데 전반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²⁰⁾ 본다. 즉, 한일간의 지배 관계는 불교 교류에서조차 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한일관계가 서로 영향력이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1926년 이후 대처승의 수가 급격히 늘면서, 해방 직전 전체 승려 중에 대처승이 90%가 넘는 현상을 초래했다.²¹⁾ 그러나 근·현대 한국비구니들은 일제강점기 왜색불교의 영향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수행과 가람수호 및 포교에 전념하였다. 조선말 금강산 일대를 중심으로 근·현대 불교의 주역으로²²⁾ 자리매김한 것으로

19) 김광식, 「용성의 건백서와 대척식육의 재인식」, 『선문화연구』 제4집, 2008.

20) 제점숙, 「식민지 조선과 불교 - 근대기 대처승(帶妻僧)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불교계의 동향-」, 『대각사상』 22집, 2014, p.271.

21) 김광식, 앞의 논문.

22) 이기운, 「조선시대 왕실 중심의 비구니승가」, 『한국비구니승가의 역사와 활동』, 한국비구니연구소, 2010, pp.285-286. 한편 조선시대에서도 비구니의 활약상이 언급되고 있다. p.271을 보면, '임진왜란 시 비구니들의 의승군 활동도 눈에 띈다. 남해 일대의 전투에 참여한 의승수군 비구니 자운삼혜는 의승대장으로서는, ... 전

평가된다. 즉 한국의 대치승은 비구승가를 의미한다. 조선불교를 일본불교화 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던 대치승 허용 문제는 해방 이후 1954년부터 ‘정화불사(淨化佛事)’라는 이름으로 비구·대치승 간의 분쟁을 초래하였고 한국불교계에 크나큰 참극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한일 불교 관계는 서로 깊이 얽혀 있는 현상적인 상황에서, 청정승가에 관한 다른 견해를 어떻게 서로 이해하고, 계율 사상에 관한 견해 차이를 어떻게 소통하고 불교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III. 일본불교 계율사상의 변천

1. 일본 고대국가의 불교계 현황과 감진의 계율 도입

일본 고대국가에서 불교의 위치는 국가통제 아래 국가의 진호(鎮護)를 담당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불교계 스스로 민간포교하는 것을 전면금지하였고, 승려의 자격과 배출도 국가기관이 담당했다. 국가에서 선발하는 시험에 통과한 관승들은 10계를 받은 후 도첩을 얻고 국가가 세우고 운영하는 사찰에서 근무하거나 호국법회를 봤다. 민간승려의 경우,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²³⁾에 의한 자서계로 수계하면서, 성문계를 수지하는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었다.

당(唐)의 감진(鑑眞, 688~763)이 일본으로 건너갔던 당시, 민간인은 물론 왕을 비롯한 왕족들의 불교에 대한 기대는 병을 제거하거나 주술적 효험에 대한 것으

투에 참여하여 이순신 장군의 수군이 승리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삼해와 옥형 등은 전쟁이 끝난 후 석천사를 짓고 이순신 장군 추모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23) 수(隋)의 보리등(菩提燈)이 번역하였고 2권이다. 상권에는, 말세중생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여서 갖가지 어려움에 부딪히면, 많은 선악의 종류를 적은 나뭇조각을 던지는 점(占)을 쳐서 과거에 지은 잘못을 관찰하고 참회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설하였다. 하권에는 중생들은 모두 여래가 될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여래장(如來藏)을 설하였다. 한편, 삼취계(三聚戒)를 자서하면, ‘바라제목차에 의한 출가계(성문계)’를 얻는 것이 되며, 비구·비구니가 될 수 있다고 설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민간인들 사이에서 성행했던 수행이기도 하다.

로, 국가에서도 불법이나 계율과는 거리가 먼 승려들을 배출하는 상황이었다. 도선의 남산율종을 승계한 감진은 동대사(東大寺) 대불전 앞에 계단을 세우고 승려와 상왕·왕·귀족 등 440명에게 처음으로 보살계를 수여한 후, 교단에서 수계하는 독자적인 의식을 완성했다. 감진이 성문계인 『사분율(四分律)』을 중시하는 한편 보살계의 삼취정계 수지를 권장하고, 국가에서 승려들에게 계율을 수지(受持)하게 함으로써 승단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가 있자, 자서계에 익숙해 있던 승려들은 감진의 수계의식에 반발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여전히 승니(僧尼)의 명부를 관리함으로써, 승단은 국가의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 헤이안시대 초기, 사이초의 원돈계와 쿠카이의 밀계

일본 헤이안시대 초기, 천태종의 종조인 사이초(最澄, 767~822)는, 진언종의 쿠카이(空海, 774~835)와 함께 당시 불교계의 양대 산맥을 이룬다.

사이초는 국가사찰인 국분사(國分寺)에서 유식과 선법을 배우고 정식 승려가 됐는데, 동대사와 같은 대사찰의 지원을 받는 수계작법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 것에 반대했다. 따라서 818년 성문계 폐기를 과감하게 선언하고, 천태종 제자들에게 대승계를 수여하면서 ‘보살승’을 선언했다. 그가 주장한 수계의식은 원돈계였다. 『범망경』이 근원적인 불성계(佛性戒)라는 천태의 범화사상 이념에 따라, 천태종 승려로서의 신분임을 자각하도록 유도했다. 사이초는 성문계를 승가의 행동규범 정도로 규정하면서 이를 철폐하고 내면적인 신앙을 강조했다. 따라서 중대한 계율을 범했더라도 참회하여 죄를 용서받고 다시 계를 수지하면 불교 수행에 전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일본 진언종의 창시자인 쿠카이는 승려로서 계를 지킬 것을 주장했고, 승가 화합을 위해서 규정을 어기는 행위는 비루한 악인의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십송율(十誦律)』에 의지하여 제자들을 지도하는 한편, 무상유가계에 해당하는 삼마야계(三昧耶戒, samaya)²⁴⁾를 독자적으로 남겼다.²⁵⁾

사이초와 쿠카이의 사상을 비교하면, 사이초는 성문계를 승가의 행동규범으로

24) 밀교의 수행단계를 소좌/행/유상/무상의 네 단계로 나눌 때, 무상요가는 가장 높은 단계의 밀교수행법이다. 그에 따른 밀교계의 내용도 달라진다.

25) 미노와 겐료 지음, 김천학 옮김, 『일본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pp.53-72.

만 규정하였으므로, 성문계에 따른 출가승의 모습을 버리고 오로지 범망경보살계로 수계했다. 이미 이때부터 승가에서 축첩 및 식육이 시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일본불교의 계율이 땅에 떨어지는데 크게 작용했다고 평가받는다. 이와 반대로 쿠카이의 계율사상은 성문계를 바탕으로 하여 마침내 무상유가계에까지 이른 것은 사이초와 크게 비교되면서, 그 이후 일본에서 계율부흥의 시대를 마련하는 기초가 되었다고 본다.

3. 계율부흥의 시대

헤이안시대 후기부터 12세기말 가마쿠라시대에 걸친 시기는 ‘왕법불법상의론’(王法佛法相依論)이라 하여, 왕법과 불법이 서로 의지하여 양자가 서로 보탬이 되어서 사회가 평화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시기라고 불린다.

이 시기에는 불교 교학의 종에 의한 구분이 뚜렷해지고, 출가 전 세속에서의 출신성분이 승려들의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승려의 출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이시기는 일본 불교역사에서 고대로부터 불교가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운 시기인 동시에 말법시대로 평가된다.²⁶⁾ 각 종파의 말법사상은 계율 부분에서도 계율이 도외시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이 시기의 종파별 조사들의 계율관을 살펴보자

정토종(淨土宗)의 조사 호넨(法然, 1133~1212)은 천태의 원돈보살계를 수지(受持)하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칭명(稱名) 수행이 선업과 계율수지를 같은 행(行)으로 귀결시키면서 계율을 수지하려는 노력보다 칭명염불에 치중했다. 신란(新巖, 1173~1262)은 호넨의 제자로서 오직 아미타불 염불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스스로 비승비속이라 하고 계율이 없다는 계율부정론 사상을 견지했다. 이렇게 무계(無戒)를 주장한 신란은 철저한 신심위본(信心爲本), 타력회향(他力廻向)의 사상을 주장했는데, 이는 일본 최대종파인 정토진종에서 주장하는 구제관의 핵심을 이룬다.

반면, 선종(禪宗)의 에사이(榮西, 1141~1215)는 천태교학과 밀교를 배웠으며, 중국 임제종의 선을 전수했는데, 선은 계율의 도움으로 불법을 흥륭(興隆)할 수 있으며 영구히 존속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범망경』에 의한 천태원돈계

26) 미노와 겐료, 위의 책, pp.73-97.

와 함께 『사분율』에 의한 성문계 둘 다 지킬 것을 주장했다.

조동종(曹洞宗)의 조사 도젠(道元, 1200~1253)은 참선만이 신심의 탈락을 경험하고 수증일여(修增一如)의 깨달음에 이른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의 선원청규가 일본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백장청규(百丈清規)²⁷⁾를 기반으로 한 『영평청규』를 제정했다. 일련종(日蓮宗)의 니치렌(日蓮, 1222~1282)은 『법화경』 신봉자로, “진언은 망국, 염불은 무간지옥, 선은 천마(天魔), 율승은 국가의 적”이라고 주장하여 타종파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다.

그 이후 세대인 지츠한(實範)과 묘혜(明惠)가 계율부흥을 외쳤고, 그 외 에이존(叡尊, 1201~1290), 유곤(有嚴), 엔세이(円晴), 가쿠조(覺盛) 등이 계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했지만, 어디까지나 국가가 주도하는 계단을 철폐하고 개인의 철저한 수행을 바탕으로 한 자서수계 실시를 위한 것이었다.²⁸⁾

에이존은 36세에 동대사 계단에서 자서수계를 행했다. 그는 계율부흥을 위해 『범망고적문집』, 『보살계본종요』 등을 저술하고, 단계적으로 삼취정계를 수계(授戒)했다. 모든 계율이야말로 성불의 가장 뛰어난 인연이라고 설하면서 7만여 명에게 이와 같은 보살계를 주었다.²⁹⁾ 당시 신(新)불교의 조사들은 계율 정신을 자신들의 교의 속에 통합시키면서 계율을 다소 무시하는 한편으로 대승계율의 부활을 외친 것이다.

가마쿠라시대의 분위기는 현밀불교가 지배적이었고, 불교계는 국가권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대부분 율종이었다. 가마쿠라 막부는 율승들과 교단을 보호하고 사원을 건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교계를 후원했다. 율승들이 주장하는 대승계율이 중생구제의 이상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지만, 이시기도 역시 자서계를 중심으로 한 율종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본의 계율사상은 더욱더 출가자가 청정성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성문계를 무시한 채 그보다 상위의 계율인 범망경 보살계에 치중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사

27) 중국의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清規)』를 이른다. 당나라의 백장 회해가 선종 사원의 규범을 성문화한 것으로, 선종의 독립된 사원, 제도, 의식 등과 각 소임에 관한 것을 규정해 놓았는데, 당·송시대에 이리저리 흩어져서 없어진 것을, 1335년 원나라의 백장 덕회가 수정하였고 순제는 이를 전국 선원에서 시행하게 하였다. 선원청규의 근간이 된다고 볼 수 있다.

28) 미노와 겐료, 앞의 책, pp.101-174.

29) 원영상, 『일본불교의 계율 수용과 변용』, 『불교평론』 53호, 2013.

상누각을 지어왔음을 볼 수 있다.

범망경 보살계에서는 음계를 비롯한 여러 조항에서 출가보살과 재가보살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그 예로, 불사음(不邪淫) 계목에 출가보살은 불사음이 아니라 불음을 지켜야 한다.³⁰⁾ 그리고 범망경 보살계에서는 식육을 철저히 금하는 이유를 불성의 종자가 끊어지는 원인으로 보는 것이므로,³¹⁾ 성문계보다 범망경 보살계에 치중한다면 대처·식육을 하고 축발하는[帶妻·食肉·蓄髮] 이들을 출가자들이 모인 승가로 보는 것은, 출가자의 계율보다는 일상의 삶에서 지킬 수 있는 계목을 채택하는 것으로 현실에 타협하는 계율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에도시대를 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문을 중시하면서, 이전에 승려만 기용했던 문과의 자리에 성리학자를 기용한 후 삭발시켜 승려의 모습으로 업무를 보게 하는 등의 정책을 폈다. 이로써, 유학자와 국학자들의 경제적 욕구를 이용한 세속적 번영을 추구하면서 폐불론(廢佛論)이 시작됐다. 메이지 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어, 불교에서 억압받았던 신도들이 불교로부터 분리되어서 불교를 훼손(毀釋)하는 주역이 되기도 했다.³²⁾ 이렇게 일본 역사 속에서 성문계의 수지는 아주 희박하고 자서수계와 보살계 수지가 대세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으며, 승가에서의 대처·식육·축발이 오랜 세월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4. 근대 일본불교의 환속화

조동종의 셋소 세이세츠(雪爪清拙, 1814~1904)가 1871년, 신정부에 ‘대처·식육·축발’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 서구종교계를 시찰하는 등의 항목을 내세운 건백서를 올렸다. 다음 해 일본 정부는, 승려가 대처·식육·축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며, 범죄를 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일반인의 복장을 해도 관계없다는 것을 법령화했다. 그러자 각 종파에서는 정부가 법적 판단으로 승려의 계율을 무시한 것에 대해 논의 중인 가운데 이미 식육·대처하는 승려들을 당연시하는 풍조가

30) 현수 법장(賢首法藏, 641~712), 『梵網經菩薩戒本疏』, 번역: 통도사영축울원, 2011, p.309.

31) 현수 법장, 위의 책, pp.494-498. 심지어는 한결같이 막고 통합조차도 없다고 풀이하였다.

32) 벽공, 앞의 책, pp.235-248.

만연했다. 각 종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불교의 세속화는 정점을 찍는 상황에 이르고, 국가의 의도대로 불교계는 자율성을 상실했다.

메이지 신정부는 1868년 사원과 신사가 공존하는 현상을 분리하고 승려를 환속시키려는 폐불·훼석을 시도했다. 1871년 일본 정부는 신(新)호적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서 승려의 승관화를 철폐하여 불교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동시에 신도(神道)³³⁾의 국교화를 촉진코자 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조동종의 오우치 세이란(大内青巒, 1845~1918)은 지계·지율의 정신을 고양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1872년 일본 정부는 비구들에게 대처·식육·축발 허가령을 내렸고 1873년에는 승려의 환속 관련 포고령을 내림으로써, 비구들은 합법적으로 결혼하고 사원을 세습화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본불교계에서는 비구들의 결혼으로 인하여 승가의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사원의 세습화가 시작되면서, 결혼한 승려가 사찰을 세습하는 현재 일본사찰의 형태로 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로 인해 승려의 부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생기면서 비구니들은 소외되었으며, 종단의 재정과 권한은 결혼한 승려들의 가족에게 집중되어 출가한 비구니들과의 갈등이 심화 되었다.³⁴⁾

이후 일본의 종파별 상황을 살펴보면, 호우넌이 창립한 정토종에서는 범망경 보살계를 받고서 비구와 비구니가 될 수 있으며, 니승(尼僧)도 최고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1987년 통계에 의하면, 정토종 출가자는 남승 8,165명, 니승 706명으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신란이 창립한 정토진종에서는 승려들이 모두 결혼할 수 있다. 남승들은 삭발하지 않으면서 비구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삼귀의와 오계를 받는다. 니승은 없지만 여성수행자나 지도자는 존재한다. 도젠이 창립한 조동종의 경우, 비구들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엄격한 출가자의 모습으로 수행 정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출가자는 삼귀의와 십계를 포함한 16계를 받으며, 니승이라도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외에 천태·진언·일련종·임제선 등의 종파들이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보살계를 받고 사찰에서 활동한다.

일본 근대불교는 불교가 국가의 이념에 저항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동조하여

33) 일본 민족 사이에 발생한 고유의 민족신앙. 대륙에서 건너간 불법 외에 일본의 본래부터 내려온 신앙·의례(儀禮)를 가리킨다.

34) 벽공, 앞의 책, pp.235-248.

극도의 결과를 낳게 된 교훈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전히 ‘종교에 대한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늘면서, 출가자가 지녀야 할 구속계를 성문계가 아닌 범망경 보살계로 대신한다. 그리고, 출가계와 재가계가 함께 포함된 범망경 보살계³⁵⁾ 중에서 재가계를 따르는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출가자가 범망경 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은, 성문계 수지를 전제로 한 섭율의계를 지키는 것이라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재가자로서 범망경 보살계를 수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그리고 근·현대에 와서 일본인들에게 불교는 종교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불교학이라는 학문 대상으로서의 관심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된다.

IV. 현대 일본불교의 계율관과 그 해법

1. 현대 일본불교계의 계율관

현대 일본 불교학계를 대표하고 있으며 율장 연구에서도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고 있는 사사키 시즈카(佐佐木閑)의 계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자. 그는, ‘왜 계율이 중요한가’라는 대담에서,

계와 율은 구별해 인식해야 한다. 계는 인간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불변의 진리다. 반면 율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스님은 재가자의 공양으로 살아가는 만큼 누구보다 더 인격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각 시대가 요구하는 인격적 행동기준은 다르므로 율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³⁶⁾

라는 논지와 함께, ‘계율과 관련한 술한 오해와 갈등은 계와 율의 독자적 특성을 무시하고 뭉뚱그려 판단함으로써 빚어진 결과다’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계와 율을 분리해서 볼 때, 율은 시대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즉 수행자의 입장에 따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5) 일타도 범장과 같이, 범망경 보살계의 10중48경계 중에서 출가자에게 해당하는 계문들과 재가자에 해당하는 계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36) 『불교신문』, (2004.8.25 일자), 특별대담, 혜능(해인율원장)과 사사키 시즈카(하나조라 대학 교수).

이에 대해 혜능은 계율에 대한 유연성 못지않게 자발성과 성실성을 강조하면서, 부처님께서는 ‘병든 수행자에게는 육식을 허용하셨지만, 몸이 건강한 출가자가 ‘육식’을 하며 ‘불살생’을 어기는 일을 용납한 것은 아님’을 상기시켰다. 또 출가자가 부처님 말씀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처지를 먼저 내세우는 것은 곤란하며, 불편하다고 바꾸기 시작하면 지킬 수 있는 계율은 아무 것도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사사키는,

굉장히 어렵지만 (율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누구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법은 고쳐야 할 책임도 있다.

라고 시대 상황에 따라 계율은 고쳐질 수 있음을 거듭 주장했다. 한국불교계 일부에서도 ‘범망경보살계가 『사분율』을 비롯한 별해탈계를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라는 주장과 맞닿아 있다. 이 말은 이미 별해탈계를 성취한 경우라면 맞는 말이지만, 계율수행이라는 실천적인 면에서 볼 때 별해탈계를 제대로 지키고 나서 보살계를 수용하기보다는 별해탈계를 무시한 채 보살계의 겉만 지키려 한다거나, ‘계는 지키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율은 버려도 된다’는 주장과 통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율장에서의 계와 율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관련된 대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2. 계와 율의 관계, 그리고 계행의 목표

불전(佛典)의 한역권(漢譯圈)에서만 널리 사용하는 ‘계율; 戒律’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계와 율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은,³⁷⁾ 불전의 고대언어인 Pali나 Sanskrit에서 계(戒; Pal. sīla; Sk. śīla)와 율(律; vinaya)은 별개의 뜻을 지닌 단어이며, ‘계율’에 해당하는 ‘śīla-vinaya’라는 용어가 사용된 경우인데, 그런 단어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37) 이자랑,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pp.294-299.; 滿川坪, 석혜능역, 『원시불교의 연구』, 민족사, 2011, pp.125-157. 만일 그가 수행자를 자처한다면 계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계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출가자의 삶, 계율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즉 출가자가 아닌 재가수행자라면 계율에 관심을 두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분석을 종합하면, 계는 ‘명상하다, 실천하다, 반복하다, 계발하다’ 등의 의미로, 덕성, 도덕성, 자율적인 윤리 측면을 강조하는 법(法; dharma)적인 경향을 띤다. 따라서 경장에서 계행을 강조하는 내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으며, 율장과 경장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중복된 것도 발견된다.

율은 ‘훈련, 단련, 교육, 제어, 규율’ 및 ‘제거, 분리’를 의미한다. 즉 외적으로 강제되는 규범인 동시에 잘못된 마음 상태 특히 탐·진·치의 악업을 제거하는 규범을 이른다. 이렇게 계가 ‘교육적 제어’의 측면으로 윤리적인 구현을 강조하는 반면 율은 ‘번뇌의 제거’ 측면이 강조된다. 그리고 율장에는 승가의 공동체 구현을 위한 생활규범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것들이다. 따라서 율은 승단을 결속하고 승가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서 승가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규율로 보는 것 역시 출가자는 수행을 위해서 승가공동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므로 출가자에게 계와 율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계를 수행하기 위한 강제성을 띤 율이 계율’이 된다. 그렇기에 출가자가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이다.

승가공동체 안에서, 출가자에게 타율적인 율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청정을 향한 것이므로 도덕적인 계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붓다께서 정하신 율장에는, 비록 ‘계’의 성격보다는 ‘율’의 측면이 강한 계문[遮戒]들의 경우에도, 계의 의미가 함축될 수밖에 없다. 출가자가 세속의 삶을 포기하고 승가구성원이 된 것은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의 기준이 되는 계율을 지키는 것은, 이들이 모두 수행의 방편이기 때문이다.

사사키의 견해를 보더라도 식욕의 문제는 율이 아닌 계의 성격이 강하며, 대처의 문제는 굳이 출가승가를 둘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또, 계율과 수행자의 긴밀한 관계를 살펴볼 때 계율을 수습(修習)하는 주체의 입장인 수행자로서의 견해가 아닌 불교학자로서 단지 계율을 인식의 대상으로 본 것에 따른 견해라고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과거 일본불교사에서 많은 이들이 보인 성문계를 경시해 온 풍조의 연장선일 뿐이다. 그러나 계율은 지키기 어렵다고 해서, 편하게 타협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출가자의 모습은 성문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며, 성문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망경 보살계를 운운하는 것은 계의 기반을 다지지 않은 채 허공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범망경 보살계가 성문계와 다른 것은, 신·구·의로 나누어 볼 때, 성문계는 별해탈계로서 이번 생이 다하면 계체(戒體)가 소멸하는 진행수계이며 몸(身)에 해당한다. 보살계는 입(口)에 해당하며, 부처의 경지에 이를 때까지 그 계체가 이어진다.³⁸⁾ 그렇다고 부처의 경지에 이르는 길에 어느 계가 더 빠르며, 어느 계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붓다께서는 근기에 따라 다양한 수행법을 보이셨고, 성문계를 구축한 출가자의 길을 강조하셨다.

한편, 아워백은 독신승과 혼인한 대처승을 비교하는 역사적 기술에서 대부분 승려가 혼인하는 것은 ‘열등하고 청정치 못한’ 것으로 본 불교 관행 때문에, 혼인한 승려는 일체에 협력하면서 자아를 상실하고 타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독신승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는 수도자로 회자된다³⁹⁾고 보았다. 그 이후 한국불교 근대화 과정에서 대처승의 출현을 식민사관의 한 측면으로 보는 것을 탈피하여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한다.⁴⁰⁾

아워백의 논리와는 달리 계율 측면에서 볼 때, 독신출가자들의 공동체를 ‘청정승가’라고 칭하는 것은 음행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출가자가 지키는 성문계의 첫 번째가 ‘불음계’로서, 오계에서의 ‘불사음’⁴¹⁾과 구별된다. ‘불음’은 음행을 전혀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것이고, ‘불사음’은 정당하지 않은 관계, 즉 사음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불음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청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아워백의 주장처럼 대처승을 자아를 상실하고 타락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지극히 이분법적인 논리로 볼 수 있다. 청정승가 구현은 출가자 본분의 길로서, 계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현실에 맞추어서 승가의 질서를 대처승가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최선일 수는 없는 이유인 것이다. 불교의 종교성보다 철학적 수행관점에서 볼 때, 계율은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대처·식육을 허용할 즈음에 일본 승려들이 이를 비판하면서, 일본을 본받지 말고 “육식과 결혼에 대한 계율만큼은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글을⁴²⁾ 조선에서 편찬하고 있는 『조선불교』에 보내곤 했던 것은, 그들 역시 대

38) 밀계(금강승계)는 의(意)에 해당하는 계로 구분된다.

39) 마이카 아워백(Micah Auerback), 홍은미 역, 『“친일불교” 역사학의 재고 : 조선불교단과 1920년대 조선에서의 승려결혼에 대한 논쟁』, 『아세아연구』 133호, 2008, pp.15-53.

40) 제점숙, 앞의 논문, p.243.

41) 현수 법장, 앞의 책, pp.309-310.

처·식육의 허용이 승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을 알 수 있다.

3. 계율의 입장에서 한일 불교관계의 개선방안

사이초는 승가에서 구족계를 지켜야 하는 조건을 무너뜨린 장본인으로서, 그로 인해 고대말기부터 무계율화(無戒律化)가 시작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그가 일불승(一佛乘) 회통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오늘날 일본은 너무나 많은 종파로 분열되어 『일본불교종파사전』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한국불교계에서는 우리 불교의 회통성이 일본불교에 큰 약방문이 될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 즉, 일제의 대처·육식 허용으로 우리도 승가의 청정성이 무너졌었고, 그 이후에 대처승 교단이 남게 되었으며, 재가불자로 구성된 교단도 있고 재가자로서 승가가 있다는 이론을 펴는 이도 있지만,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청정승가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제에서 벗어난 우리 승가는 ‘왜색불교’라는 불미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 청정승가를 구현하고자, 이 땅의 선지식들과 율사들은 붓다가 정한 계율을 지키고자 노력해 왔다. 자운·일타·지관·보성을 비롯한 많은 출가자가 계맥을 중수하고 각 총림에 율원을 세워서 계율을 수지한 화합승가로서 수행·정진하는 풍토를 이루고자 매진해왔다. 지금 우리는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외치면서, 해외에 한국사찰을 건립하고 한국의 승려를 외국에 파견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도 승가공동체로서의 대중생활 형태가 점점 어려워지고, 독살이 체제가 가속화되면서 수행자로 사는 삶보다 승려의 직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지 않는 한, 우리 승가공동체의 미래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불교에 관련된 통계수치⁴³⁾를 볼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타국과의 경쟁과 검

42) 마이카 아워백, 앞의 글, p.45.

43) 『불교신문』, (2021.5.26 일자), 「불교 호감도 가장 높았다 ... 가파른 탈종교화 ‘숙제’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인의 종교인식’을 조사한 한국 갤럽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로 불교가 꼽혔지만, 종교에 대한 무관심과 탈종교화 현상은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불교에 대한 호감도와 달리, 불교도인들의 신앙생활은 타 종교와 비교하여 최저치에 머무는 것도 확인되었는데, 이는 불교도인들이 직접적인 신생활에 적극적이지 않은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중에 돌리는 것이 좋은 방법⁴⁴⁾이라고 역설하는 이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불교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티베트불교와 미얀마, 태국 등에 자리해온 남방불교다. 미얀마에는 마음챙김 수행을 배우려는 서양의 수행자들이 끊이지 않는다. 티베트불교는 이미 서양세계에 깊숙이 뿌리내렸으며, 초기불교·대승·금강승을 수행의 차제로 말할 뿐, 자신들이 대승불교라고 구분하지 않는다. 또한, 남방불교권과 티베트 불교권에서는 수행에서 계율이 토대가 됨을 늘 강조하고 있다.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 다카하시를 비롯하여 일제강점기 때부터 일본 불교학자들의 한국불교에 관한 연구는 정치적 목적을 두고 식민사관에 의해서 시작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한국불교를 중국불교의 한 면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 그러한 한국불교 역사관에도 변화가 일어나서 한국불교를 객관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일본에서도 계율 정신에 관하여 새롭게 조명하고 있으며, 일본 불교학의 입장기기는 하지만 불교사 전체와 인도, 남방 및 동아시아 불교권의 사회와 계율변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⁴⁵⁾

따라서, 비록 일본에서 대처승가의 문제는 고대로부터 시작된 뿌리 깊은 것으로 우리와 그 상황이 사뭇 다르다고는 하지만, 1872년 대처·식육·축발 허가령을 내렸고 1926년 조선의 승가에도 같은 허가령을 내림으로서 양국 승가의 무너짐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보았을 때,⁴⁶⁾ 현대 한국승가에서는 정화과정울 거치면서 출가자로 구성된 청정승가를 회복하였다는 점에서 일본불교계에 한국의 현대승가는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될 것이다. 또 한국도 일본승가를 모델로 우리의 미래를 연구하는 데에 타산지석의 소재로 작용할 것이다.

대한 성찰과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44) 『불교신문』, (2019.9.21), 논설위원 윤성식, “한국불교는 미얀마·티베트불교보다 수승한가”라는 글에서, 경쟁의 측면에서 한국불교를 다른 나라 불교와 비교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45) 원영상, 앞의 논문.

46) 앞의 각주 20) 참조.

V. 나오는 말

현대 일본불교를 ‘장례불교’라고 비판하지만, 한국불교도 점점 장례문화에 갇혀서 빠져들고 있다. 한일 불교계는 서로 이런 현상과 여러 문제에 대해 직시하고 문제점들을 타파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범망경 보살계 수지로 승려가 되고 성문계가 맞지 않으면 고쳐야 한다는 계율경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청정승가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계율을 중시하고, 수행과 연결되는 출가자의 삶을 지향하는 불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에 대한 노력의 하나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서는 2021년 4월 30일 ‘비구니승가공동체 수행결사’ 발족식⁴⁷⁾을 갖고 청정승가 구현을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행보이지만, 이러한 한국 승가의 노력이 일본의 승가에도 선한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본불교계에서도 승가의 자정에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있으므로, 한국불교계와 손잡고 청정승가 구현을 위해 울장에 따른 수계 의식 등 계율의 정착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면, 서로에게 더욱 긍정적인 대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불교적 차원에서 현대 한일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실제적인 협력 등이 이뤄지고 서로 융합 발전을 모색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는 전혀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지만, 여러 학회를 통해서 한일간 공존의 해법을 찾아서 노력하고 있는 점이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소통은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므로, 일본의 대처승가에 대해서 우리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대화의 단절만 낳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한일관계 개선의 불교적 모색은, 오코노기 마사오의 한일관계 개선안⁴⁸⁾의

47) 『불교신문』, 2021.4.30.일자, 「승가공동체 정신 회복 위한 ‘전국비구니회 수행결사 발족’」이라는 제목으로, ‘청정한 승가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자’는 모임의 취지를 취재하였다.

48)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70> (2020.12.29.일자). 일본을 대표하는 한반도 전문가 오코노기 마사오는 [한일 공존의 해법을 찾아서①] “새시대를 위한 한일간 협력 전략”이라는 글에서, 한일관계의 악화가 초래하는 유무형의 손해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 장기적인 상황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단념’에 가까운 제4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이유는, 대립이 바닥을 치면, 한일간의 존재는 상호 의존을 보일 것이라고 보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정치·경제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불교적 해법의 방안으로서 제시될 수 있음을 본다.

네 번째인 '전략적인 인내와 장기적인 낙관에 의존'하는 방식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불교 교류의 긴 역사 속에서, 특히 계율적인 면을 부각했을 때 한일간의 존재는 '떨 수 없는 상호의존적인 관계'였음을 보았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내심을 갖고 앞으로도 교류해야 할 것이다.

이번 한일관계 악화의 시발점은 위안부 문제와 독도의 문제로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국 모두 다양한 각도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명제를 갖고 있기에 불교적 해법에 대한 사유의 끈을 더욱 진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
 현수 법장, 『梵網經菩薩戒本疏』, 번역: 통도사영축출원, 2011.
 김영태, 『백제불교사상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985.
 _____, 『삼국시대 불교신앙연구』, 불광출판사, 1990.
 미노와 겐료 지음, 김천학 옮김, 『일본불교사』, 동국대학교출판부, 2017.
 벽 공, 『동아시아 비구니교단의 역사』, 조계종출판사, 2012.
 이능화, 『역주 조선불교통사』 4, 동국대출판부, 2010.
 이자랑,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 동국대학교 출판부, 2017.
 일타스님, 『범망경보살계』, 효림, 2017.
 淸川坪, 석혜능역, 『원시불교의 연구』, 민족사, 2011.
 김광식, 「용성의 건백서와 대척식육의 재인식」, 『선문화연구』 4집, 2008.
 김천학, 「한국찬술불교문헌의 확장성에 대한 일고찰」 70, 『서지학연구』 70호, 한국서지학회, 2017.
 김천학, 「일본불교의 한국불교 인식」, 『불교평론』 37호, 2008.
 박희영, 「고려대장경과 일본」, 『도협』 월보 v.1 no2, 한국학도서관, 1960.
 원영상, 「일본불교의 계율 수용과 변용」, 『불교평론』 53, 2008.
 마이카 아워백(Micah Auerback), 홍은미 역, 「‘친일불교’ 역사학의 재고 : 조선불교단과 1920년대 조선에서의 승려결혼에 대한 논쟁」, 『아세아연구』 3호, 2008.
 이기운, 「조선시대 왕실 중심의 비구니승가」, 『한국비구니승가의 역사와 활동』, 한국비구니연구소, 2010.
 제점숙, 「식민지 조선과 불교 - 근대기 대처승(帶妻僧) 문제를 둘러싼 한일 불교계의 동향-」, 『대각사상』 22집, 2014.

<미디어투데이>, (2019.10.4)

<불교신문>, (2019.9.21)

<불교신문>, (2004.8.25)

<불교신문>, (2019.9.25)

한인섭, <프린팅 코리아> vol.79, 2009.

<https://news.joins.com/article/21839161>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8016>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7406&cid=46648&categoryId=46648>

<https://www.yeosijae.org/research/1070>

Abstract

Searching for a Buddhist Solution between Korean and Japan
- At the point of the history in the acceptance of śīla-vinaya -

Oh, Ho-youn(Ven. Yu-jeong)
(Department of Education, Deputy Director
Korean Bhisuni Association of Jogye Order)

Today, world economy seems to be in the fierce battle field without any sound of bullet heard.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s long experienced ups and downs in the economic, political entanglement to take the initiative. But It was Korea that brought Buddhism to Japan and delivered the Precepts and *Tripitaka Koreana* for the first time. Japan to which Korea introduced *Tripitaka Koreana* and metal type was able to become a powerhouse in publishing, including Buddhist canon, rather than focusing on meditation. On the other hand Korean Buddhist sangha which has kept purity through celibacy tradition was tarnished by Japan's officially allowing Sangha marriage and mea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ncy.

A Japanese śrāmaṇerī named Zenshin(善神) came to Baekje(百濟), and practiced for two years under the guidance of Korean bhikṣuṇīs. After becoming the Japanese first bhikṣuṇī, she returned home to Japan ordained the first Japanese bhikṣu by herself.

From the creation of *Tripitaka Koreana*(1365) in the Koryo(高麗) to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朝鮮) in Imjin year(壬辰倭亂, 1592-1598), Japan obtained diverse Buddhist scriptures from Korea and China, including *Tripitaka Koreana*. Finally Japan succeeded to compile a vast “*Tripitaka* (一切經)” of over 6,000 books. The Tripitaka became the foundation for the compilation of the “*Taisyō shinsyū daizōkyō*(大正新修大藏經)”, which is unrivaled in modern Buddhist society. Howeve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ruin the pure Korean Sangha by forcing Korean bhikṣus to

get married and eat meat. Their intention was to cause anti-Buddhism in Korean people and to Japanize Korean Buddhism.

Up to Today, the Korean Sangha has tried to keep celibacy for the pure Sangha, but in Japan, the pure Sangha has almost collapsed, which is originated from a false understanding of the precepts. Thus, for the restoration of the pure Sangha, it is time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o establish the right understanding of Buddhist precepts.

So, this paper try to find a Buddhist solution in the historic relations of Buddhist interchange between Japan and Korea. Especially nowadays when the relations in almost all aspects are getting worse, we need to seek measures needed to improve the relation and enlarge the cultural exchanges. And we, Japan and Korea, can think to reopen a place for conversations on the Precepts and exchange the diverse viewpoints on them.

Key words

the Japanese first bhikṣuṇī Zenshin(善神), origination of the Japanese *Tripitaka* (一切經), the allowance for monk marriage with eating meat in Japan and Korea,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of śīla-vinaya, bodhisattva-śīla and self ordination, Effects of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